



환상의 덕메이트 1.

우리 사이 새콤달콤

글 박현숙 그림 다홍

펴날날 2026년 9월 10일 | 독자 대상 초등 중학년 이상

분량 148쪽 | 판형 135×195 | 값 14,000원

펴낸곳 미래엔 아이세움

ISBN 979-11-7548-892-2 74810

979-11-7548-891-5 (세트)

▶ 책소개

편견 대신 취향, 다름 대신 공감!

‘최애’ 하나로 세대 차이를 훌쩍 뛰어넘은

초등학생과 70대 할머니의 새콤달콤한 덕질 우정!

베스트셀러 작가 박현숙과 백만 웹툰 작가 다홍이 만났다!

“친구는 나이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세대와 세대를 ‘취향’으로 잇는 새로운 우정 동화의 등장!

친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비슷한 나이, 같은 반, 똑같은 관심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친구는 어린이이고, 할머니의 친구는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환상의 덕메이트 1. 우리 사이 새콤달콤》은 인기 없는 30대 남자 아이돌 ‘돌돌삼’을 몰래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 세윤이와, 같은 아이돌의 노래와 굿즈에 푹 빠진 70대의 세미 할머니가 ‘덕질’을 통해 친구가 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나이도, 살아온 시간도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바로, ‘최애’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신나고, 또 행복해하는 ‘덕후’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 우정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세미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돌돌삼의 흔적을 발견한 세윤이는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들은 원래 아이돌보다는 트로트 가수를 더 좋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미’라는 이름조차 할머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지요. 그런 세윤이에게, 세미 할머니는 “할머니는 예쁜 이름이면 안 되냐?” 하고 되묻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무심코 씹워 온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뒤집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서로의 ‘최애’를 알아가는 순간, 모든 세대 차이는 놀랄 만큼 작아집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함께 듣고, 같은 굿즈를 함께 모으며 즐거워하는 동안 두 사람은 친구가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친구는 나이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같고, 마음이 잘 통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던 책 속 세미 할머니의 말처럼, 《환상의 덕메이트 1. 우리 사이 새콤달콤》은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구분보다는 상대방의 취향이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 사이에도 친구 관계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할머니는 트로트 가수, 어린이는 아이돌 가수?

‘세대’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씹은 편견을 유쾌하게 깨뜨리는 이야기!

우리는 종종 나이에 따라 사람의 취향을 쉬이 짐작하곤 합니다. 어린이는 이런 것을 좋아할 거고, 어른은 저런 것을 좋아할 거라고 쉽게 단정하지요. 《환상의 덕메이트 1. 우리 사이 새콤달콤》은 거창한 설교 대신, ‘덕질’이라는 친숙하고 유쾌한 소재를 통해 이러한 세대 편견을 경쾌하게 뒤집습니다.

세미 할머니는 자신도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세윤이 역시, 또래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기 어려웠던 세윤이는 세미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지요. 얼핏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준 때문에 내 취미를 감추어야 한다’는 고민을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의 덕질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공유를 넘어, 서로의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하지 않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어린이’와 ‘할머니’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덕메이트’가 되어 갑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취향’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책은 세대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 발견해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세대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기보다, 차이가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새콤달콤한 것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처럼,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발견한 새로운 친구

세미 할머니와 주인공의 우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른 만큼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서로를 바라보는 데에는 자신도 몰랐던 편견이 불쑥 끼어들었지요. 하지만 때로는 새콤하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한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세계를 알아 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세윤이는 세미 할머니와의 우정을 “새콤달콤한 것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처럼,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는 맛. 세미 할머니와 나의 우정은 꼭 그런 맛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조건을 나이와 성별, 환경 같은 외적인 기준에서 찾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작품의 메시지가, 이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향을 매개로 나이와 성별, 지역을 넘어 관계를 맺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동화 속 친구 관계는 여전히 종종 또래를 중심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 책 《환상의 덕메이트 1. 우리 사이 새콤달콤》은 친구의 범위를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나이에서 과감하게 확장해, 일흔 살 할머니가 어린이의 보호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떠들고 덕질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바로 이 낯설고도 유쾌한 관계가, 〈환상의 덕메이트〉 시리즈가 보여 줄 새로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누군가와 멀어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공통점을 찾아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 벗어나길 바랍니다.

〈수상한 시리즈〉 박현숙 작가 × 〈숲속의 담〉 다홍 작가

아동 문학과 웹툰에서 사랑받아 온 두 작가의 환상적인 만남!

《환상의 덕메이트 1. 우리 사이 새콤달콤》은 작품 속 주인공들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덕메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박현숙 작가와 다홍 작가입니다.

박현숙 작가는 아이들과 수다 떠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만큼 어린이의 일상과 마음을 가까이에서 포착해 온 작가입니다. 제1회 살림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잘 혼나는 기술》, 《가짜 칭찬》, 《다있소 잡화점》을 비롯해 〈수상한 시리즈〉, 〈구미호 식당 시리즈〉, 〈구드래곤 시리즈〉, 〈천개산 패밀리 시리즈〉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어린이 독자와 만나 왔습니다. 특히 박현숙 작가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법한 관계와 갈등을 유머러스한 사건으로 풀어내면서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린이의 고민을 놓치지 않는 이야기를 꾸준히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작품 《우리 사이 새콤달콤》에서도 ‘덕질’이라는 발랄한 소재를 통해 세대와 편견이라는 묵직할 수 있는 주제를 경쾌하게 풀어냈지요.

여기에 네이버웹툰 〈숲속의 담〉과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도〉를 연재하고, 2021 SF어워드 만화·웹툰 부문 대상과 20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다홍 작가가 그림을 맡았습니다. 다홍 작가 특유의 개성 강한 캐릭터와 생동감 넘치는 표정, 만화적 연출은 세미 할머니와 주인공의 유쾌한 ‘덕질 케미’를 한층 생생하게 보여 줍니

다. 실제 표지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아이돌 굿즈를 든 세미 할머니와 주인공 세윤이가 나란히 등장해, ‘할머니와 어린이’라는 세대 차이보다 한 팀처럼 어우러진 두 인물의 관계에 먼저 시선이 가게 이끌었지요.

어린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유쾌하게 이야기해 온 박현숙 작가의 스토리텔링과,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홍 작가의 감각적인 그림이 만나 탄생한 <환상의 덕메이트> 시리즈의 첫 권! 이 두 작가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완성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린이 독자들에게 새롭고 유쾌한 우정의 세계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환상의 덕메이트> 시리즈 소개

편견 대신 취향, 다름 대신 공감! 세대를 이어 주는 새로운 우정 동화

<환상의 덕메이트>는 나이와 세대, 성별 등 서로를 구분 짓던 경계를 넘어 ‘좋아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그리는 새로운 우정 동화 시리즈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꼭 같은 세대일 필요도, 같은 환경에서 자랄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마음을 설레게 하는 캐릭터 하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취미 하나만으로도 전혀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우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환상의 덕메이트> 시리즈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나이나 외모, 성별 같은 익숙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들여다보도록 이끕니다.

▶ 차례

1. 너와 나는 앙숙
 2. 나만의 비밀
 3. 소원을 들어준다면
 4. 이상한 할머니
 5. 할머니와 파스타
 6. 엄지척, 넌 누구
 7. 친구는 힘들어
 8. 첫 선물은 보라색 양말
 9. 사라진 할머니
 10. 앙숙의 이유
- * 그리고, 그 후

작가의 말

▶ 책 속으로

▶ 작가 소개

글 박현숙

아이들과 수다 떨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으로 동화 쓰기를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1회 살림어린이문학상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았고 그동안 《잘 혼나는 기술》, 《가짜 칭찬》, 《다있소 잡화점》, 《절교의 여왕》을 비롯해 <수상한 시리즈>, <구미호 식당 시리즈>, <구드래곤 시리즈>, <천개산 패밀리 시리즈> 등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림 다홍

2021 SF어워드 만화·웹툰부문 대상과 20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재한 웹툰 작품으로 네이버웹툰 <숲속의 담>,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도>가 있고 만화 시집 《오래 보고 싶었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우)137-905

담당자: 백한별 (010-8767-1933) 이메일: hanbyul.baek@mirae-n.com

FAX: 02-541-8249